

메모리 10장이면 국회 도서관 '손안에'

(장서 220만권)

삼성전자 '플래시토피아'가 불러올 실생활 혁명

손톱크기 칩 하나에 25년치 신문 저장 하드 디스크 없는 컴퓨터 시대 가속화

'플래시 메모리로 만드는 유토피아(Utopia)'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신개념 CTF(Charge Trap Flash) 기술과 40나노 32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출시하면서 엄지 손톱 크기의 플래시 메모리로 소비자 생활의 낙원을 만드는 '플래시토피아(Flashtopia)'를 선언했다.

플래시 메모리를 저장매체로 삼아 문자와 사진, 음악, 동영상 등 일반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아 저장했다가 자유자재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혁명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

삼성전자가 11일 발표한 40나노 반도체 기술은 두께가 머리카락의 3천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 기술이며, 32기가 메모리 용량은 세계 인구 65억명의 5배인 328억개의 메모리 기본 소자가 엄지 손톱만한 크기에 집적되었다.

오는 2008년께 32기가 낸드플래시가 양산되면 이를 이용해 노래 8천곡을 저장할 수 있는 32기가 바이트의 MP3가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28기가 바이트 SSD(Solid State Disk)로 기존 1.8인치 HDD(Hard Disk Drive)를 완전히 대체함으로써 하드디스크 없는 컴퓨터의 시대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최대 64기가 바이트 메모리 카드를 만들 수 있어, 고해상도의 사진 3만6천장을 저장할 수 있고 영화도 40편을 손쉽게 담을 수 있다.

전세계 5대양 6대주의 대륙과 해양 지

리 정보를 네비게이션에 저장하면 이론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혼자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카드를 10장만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의 장서 220만권에 담긴 정보를 고스란히 담았다가 조회해볼 수 있는 '손안의 도서관' 시대도 열린다.

32기가급 플래시 메모리 하나면 인간

의 하루 24시간의 기억을 1주일치나 담을 수 있어 '기억력'은 필요없이 필요한 정보를 꺼내본 뒤 선택과 판단(사고)만 하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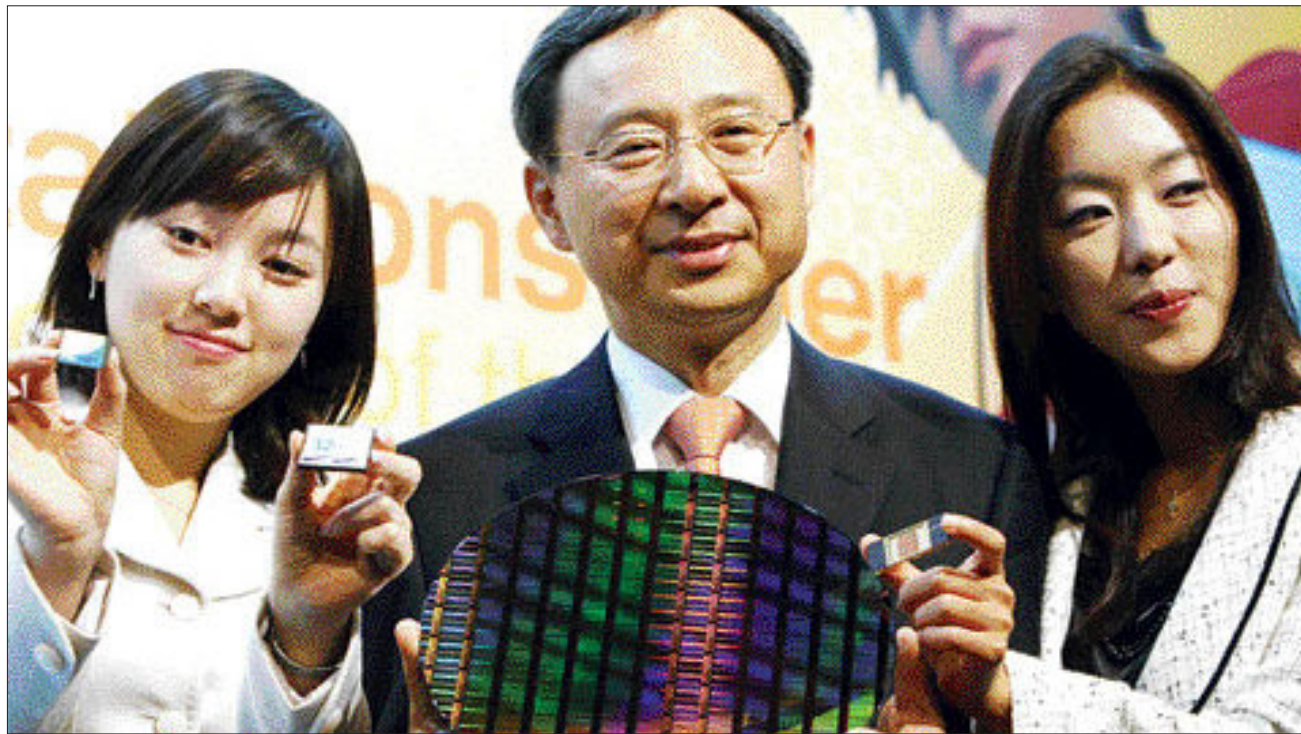
삼성전자 황창규 반도체 총괄 사장은 "창조적인 생각과 가족들에게 점을 주는 일을 뺀 나머지는 플래시 메모리에 맡겨라"고 선언하면서 플래시 메모리가 인간 생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올해를 낸드플래시 메모리가 PC시장에 진출한 원년으로 선언했고 이를 PC에 적용해 하드디스크 없는 '디지털PC'를 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정보를 고스란히 담았다가 조회해볼 수 있는 '손안의 도서관' 시대도 열린다. 32기가급 플래시 메모리 하나면 인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에 비해 훨씬 가볍고 속도도 빠르며 소비 전력도 적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디지털 생활은 용량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라도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가 꺼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플래시 메모리의 최대 장벽이었던 가격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어 실생활에의 적용은 눈부신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PC에 적용되는 낸드플래시 시장은 2010년까지 170억달러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에서 2010년에는 26%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황창규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최초 CTF 낸드기술 개발과 상용화 성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회에서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 등 최첨단 반도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시대 성큼...250조원대 시장 창출"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 황창규 반도체총괄 사장은 11일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최초로 신개념 CTF(Charge Trap Flash) 낸드 기술 개발을 선언하고, 강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황 사장은 낸드플래시뿐 아니라 현재 4위권인 노어플래시 부문도 이르면 2007년 1위에 등극, 명실상부한 플래시 메모리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1990년대 D램 세계 1위 등극으로 한국경제 호황을 주도한 '제1의 물

결'과 첨단 낸드플래시 개발로 '플래시 러시'를 선도한 '제2의 물결'에 이어 이번 CTF 기술 개발에 따라 '테라(기가의 1천 배) 시대'라는 '제3의 물결'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황 사장과와의 일문일답.

- 다른 회사가 CTF 기술로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경우 특허사용료를 받게 되나.

▲우리는 이미 12건의 CTF 기본특허를 등록했다. CTF가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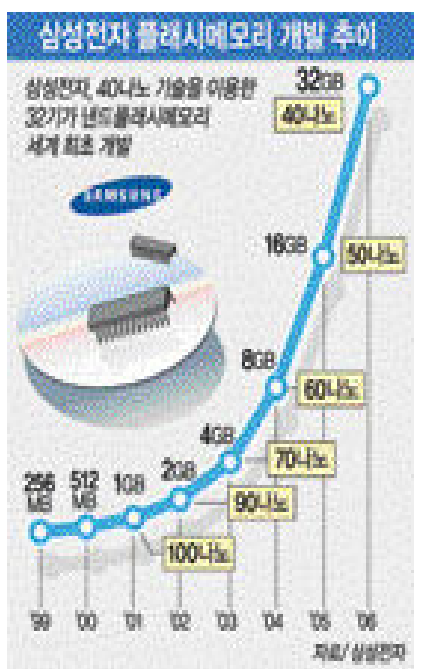
- 낸드플래시 및 D램 가격 전망은.

▲낸드플래시 가격은 하반기부터 안정되고 있으며 내년 1·4분기말 일시적인 공

급 과잉을 거치지겠지만 하반기 신제품 출시와 함께 다시 안정될 것이다. D램은 시장이 다양화하면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수요의 70% 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까지 가격이 좋을 것으로 본다.

- 올해를 '플래시토피아(Flashtopia)'의 원년으로 선언했는데.

▲2005년이 '플래시 러시(Flash Rush)'의 해였다면 삼성전자의 2006년은 모든 인류의 열원이 실현되는 '플래시토피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향후 250조원대의 시장이 창출 될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를 보고...



최태만

이번 2006광주비엔날레에 임민욱은 '오리지널 라이브러링'이란 특정한 공간을 재현했다. 원래 남성들의 은밀한 장소를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뒤바뀌는 것이므로 이 작품은 엄밀하게 말해 재현이 아니라 '창조된' 공간이자 '변조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욕망이 특정한 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의해 독점되는 장소에 대한 배제와 위반은 어찌 보면 비엔날레란 유형이 지닌 특징을 압축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미 6회를 맞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미술을 경험하리라 믿음은 그 입구에서부터 좌절당하고 만다.

베트남의 준 구엔 하츠시바는 전시관의 두 동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막아 일종의 폐쇄적인 감옥을 만들고 그 속에서 다국적기업인 단 하나의 점만 찍어놓은 이우환의 철학적인 색상을 따라 처음에 베트남 국기를 표현한 이 생수들은 곧 소변으로 채워져 궁극적으로 성조기를 상징하는 별의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종결된다.

태를 만드는데는 비엔날레 전시장 두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 위에서만 '확

과는 달리 장소를 비엔날레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전시장을 찾아 방황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배려를 잃지 않았다.

또한 크게 두개의 주제 아래 그것을 다시 소주제로 나눠 각 큐레이터들이 기획하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전시로 통합한 까닭에 각 영역별 경계에 대해 신경을 쓰며 큐레이터들의 기획의도를 따라가야 하는 불편을 해결해준 '진절할'이 돋보였다. 하지만 역시 이번 비엔날레는 임민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욕망의 독점과 그것의 배제와 좌절이 압축되고 뒤엉킨 미완의 프로젝트이자 그만큼 눈이 분분할 수 있는 토론과 논쟁의 장임을 확인케 만드나.

당장은 아시아를 핵심어로 내건 이번 전시의 '첫 장-부리를 찾아서 : 아시아 이야기

서로 주장하고 부딪치는 공간

아시아를 찾는 시끄러운 탐색

인'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김홍석의 연출에 따라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을 한 소년이 또랑또랑한 음성으로 펼쳐는 또 하나의 웅변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소란과 활력은 거대한 벽면에 큰 빛줄의 흔적이 한 하나의 점만 찍어놓은 이우환의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벽화, 주변의 시끌벅적한 설치나 영상물 속에 포위당한 채 앞장만 한 이종상의 차분한 회화 등과 혼용된다. 이 모든 작품들이 비엔날레란 형식의 전시가 엄숙한 침묵이 흐르는 완결의 장소가 아닌 주장과 방법이 서로 충돌하며 진행되는 장소를 증명하는 듯 하다.

그러나 하면 '마지막 장-길을 찾아서 : 세계도시 지도 다시 그리다'에 참가한 작가들의 작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심각하기는 하지만 세계의 다른 많은 비엔날레들이 주장해 온 담론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게 만든다.

이번 6회 광주비엔날레는 '열풍변주곡'을 주제로 동서 현대미술에서 증폭되고 있는 아시아 미술문화에 대한 관심, 아시아 신흥 도시들의 개발 및 일반 문화흐름에서 일고 있는 여러 열풍 현상들에 대한 진단과 그 상징적 함축, 팽창·확장하는 아시아의 내적 에너지와 비전을 담아냈다.

이같은 전시기획 의도에 따라 아시아를 눈높이의 중심에 놓은 이번 비엔날레는 예년

를 펼치다의 소주제인 '정신의 흔적' 섹션에 이미 과거지사인 '낡은' 플래시스의 기록물들을 회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그들이 펼쳐는 이야기가 과연 아시아의 정신과 얼마나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인지가 애매하다. 참여그림인 '플래시스'란 이름이 강조하는 권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시를 통해 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대중문화로 대표되는 문화상품의 효과만 강조했지 정작 그것을 생산해낸 문화의 역할관계에 무관심함으로써 '상품'은 있고 '내용'은 없는 열풍에 열광했던 '한류'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비엔날레를 통해 아시아를 휩쓰는 열풍변주곡의 실체가 과연 있거나 한 것인지, 있다면 적어도 현대미술에서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무엇이며,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역력

▲1962년 경북 청도출생 ▲서울대 미술대학, 동대학원 졸업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4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 전시감독 ▲미술평론가 및 전시기획자 ▲현 국민대 미술학과 교수

A large advertisement for 'Changwon' (창원) featuring a grid of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electronics, clothing, and food. The ad includes a large table with columns for product names, prices, and descriptions. The overall theme is 'Good people, good things - Changwon is the best place to buy things'.